

춘계 학술 대회 순서

사회 : 주 정 숙 부회장

1. 개 회 10 : 00~10 : 20
2. 국민의례
3. 회장인사(손 경 회 회장)
4. 환 영 사(김옥렬 숙명여대 총장)
5. 기조강연 윤 인 경(한국교육개발원) 10 : 20~11 : 10
—중학교 남녀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
6. 분야별 발제강연 11 : 10~13 : 00
 - 의 생 활 성 화 경
 - 식 생 활 이 일 하
 - 주 생 활 이 경 회
 - 가정경제 박 명 회
 - 가족관계 김 혜 선
7. 점 심 (평이사회의) 13 : 00~14 : 00
8. 토 의 사회 : 문숙재 부회장 14 : 00~16 : 00
 - 의 생 활
 - 식 생 활
 - 주 생 활
 - 가정경제
 - 가족관계
9. 토의종합 및 폐회 16 : 00~16 : 40
10. 다 과 회 16 : 40~

후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中學校 男女 學生을 爲한 家政科 教育

韓國教育開發院 責任研究員·哲博

尹 仁 卿

I. 問題의 提起

家政은 數學, 科學, 外國語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비롯한 世界의 여러 나라에서 學校教育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教科目的 하나이며, 傳統的으로 바느질, 料理, 육아등 家庭生活에 必要한 內容을 女學生에게 가르쳐 왔다. 그러나 美國을 비롯한 産業化된 國家에서는 男女 모든 學生을 爲한 家政科 教育이 1900年 初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 많은 數의 男學生이 中學校 水準에서 家政科 教育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急進의인 國家의 産業化는 많은 女性을 勞動市場으로 끌어들이었고, 그結果 家事를 돌보는 것이 女性만의 일에서 男女 모두의 일로 變化되었고 이는 家庭生活에 必要한 基礎的인 知識과 機能이 學校教育을 통하여 男學生에게도 가르쳐져야 함을 要求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中學校에서 女學生을 對象으로 家事, 裁縫, 手藝등의 家政科 教育이 시작된 것은 16世紀 末이며, 그후 數차례에 걸쳐 教育課程이 改正되어 왔으나 아직도 家政은 女學生만을 爲한 科目으로 存續되고 있다. 더우기 1969年의 教育課程改正을 계기로 技術科目이 新設되면서 부터는 機械, 電氣, 電子, 木工등과 같은 技術的인 內容을 女學生에게도 必須的으로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그후 1973年과 1981年의 教育課程 改正에서도 技術科의 內容은 여전히 家政科의 內容에 포함됨으로써, 技術은 1969年이후 지금까지 獨立科目으로서 또는 家政科目的의 一部로서 女學生에게 必須的으로 과하여져 왔다. 즉, 1969年 이후 계속적인 教育課程改正을 통해서 女學生에게는 技術의 內容을 이수하도록 끊임없이 强要하였으나 男學生

에게는 아무런 變化없이 오직 技術만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한편 選擇科目에 있어서도 教育課程에서는 男女 모든 學生이 農業, 工業, 商業, 水産業, 家事중에서 한 科目을 選擇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學校中心의 選擇科目 運營은 家事를 女學生을 위한 科目으로만 存續하게 하므로써, 中學校 水準에서 男學生이 家庭生活에 必要한 基礎的인 知識과 技能을 習得할 수 있는 機會를 전혀 提供하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따라서 이러한 教育課程上的 또는 教育現場에서의 性에 대한 硬直된 偏見은 變化하는 國家·社會의 여러 要因들에 의하여 再考되어야 할 必要가 있다.

II. 研究의 必要性

우리나라는 1962年 이후 經濟發展의 成功的인 수 행으로 經濟·社會적으로 큰 變化가 많았으며 女性의 地位向上도 그 中の 하나이다. 즉 均等한 教育機會의 提供과 確大는 女性도 男性과 똑같은 教育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家庭과 社會에서 女性의 位置를 男性과 同等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教育環境, 특히 教育課程上에서는 男女의 區分을 뚜렷이 하여 男學生에게는 産業生活(Industrial Life)을, 女學生에게는 家庭生活(Family Life)을 強調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中學校教育이 初等教育과 高等教育의 中間의 위치에서 普通教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며, 學生 個人的 興味와 適性을 發見하고 進路를 선택하게 해야할 時期에 있다고 할 때 性的 偏見이 없는 學校教育, 그중에서도 家政科 教育의 役割이 크며 더우기 다음과 같은 여러 要因들의 變化는 그 中要性을 더욱 增大시키고 있다.

1. 家族構造의 變化

産業의 發展에 따른 여러가지 社會變化는 家族의 構造를 종래의 大家族에서 小家族으로, 그리고 夫婦 中心의 核家族으로 變化시켰다. 즉, 1980年 現在 우리나라 全體 家庭中 78.9%가 核家族을 이루고 있으며 家族의 數도 急激히 줄어들어 1985年의 家口當 家族數는 1980年에 比하여 0.5名이 줄어든 4.2名이다. 이러한 家族의 形態와 規模의 變化는 家庭中 家族構成員의 역할에도 變化를 가져와 여러 家族構成員에 의해 수행되면 家庭의 일이 夫婦 또는 그들의 子女들에 依하여 수행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男性도 女性과 똑같이 家事에 參與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Sharing family work among family members).

2. 家庭의 機能 變化와 諸家事의 單純化

家庭의 機能은 傳統的으로 生産者로서의 역할이 重覽되었으나 오늘날은 産業의 발달로 인한 大量 生産, 機械生産에 힘입어 消費者로서의 역할을 더욱 強調하고 있다. 또한 주택 構造의 變化, 家庭 살림살이의 機械化, 日常用品의 상품화등은 女性의 家事 노동시간을 절감시킬 뿐만아니라 男性들도 쉽게 家事에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女性은 職業(Career) 生活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3. 女性教育 機會의 擴大

女性을 위한 教育機會는 19世紀末 처음 시작된 이래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一例로 1982年에는 國民學校를 卒業한 여학생의 92.6%가 中學校에 진학하였으나 94.6%의 男學生에 比하면 다소 낮은 水準이었다. 그러나 義務教育이 中學校 水準까지 擴大 實施되는 1991年 이후부터는 中學校 教育에서 男女의 차이는 없어질 展望이라고 教育 專門家들은 分析하고 있다.

4. 女性 雇傭의 增大

다른 여러 産業化된 國家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女性의 勞動市場에의 進出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고, 즉 1970년에는 全體 雇傭人口의 30.2%

였던 女性人力이 1980년에는 36.6%로 增加하였으며 과학기술처의 추정에 의하면 1991년에는 41.3%로 增加할 전망이다.

5. 職業世界的 開放

傳統的으로 職業의 世界에서는 職業의 種類에 따라 警察, 軍人, 醫師등과 같은 男性을 위한 職業과 教師, 간호원, 비서, 美容師등과 같은 女性을 위한 職業을 뚜렷이 구분하고 있었다. 그러나 經濟와 技術의 發展은 새로운 職業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職業이 要求하는 資格과 能力이 있는 個人이면 누구나 性的 偏見없이 願하는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職業의 世界를 開放하고 있다. 그리하여 職業의 世界에서 性에 대한 固定된 偏見이 없어지고 있다.

Ⅲ. 우리 나라의 中學校 家政科 教育

우리나라의 中學校 家政科 教育은 1908年 高等 女學校令의 公布와 함께 本格化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日帝時代, 美軍政時代등을 거쳐 1955年 8月 1日 文教部令 제45號의 中學校 教育課程 制定·公布와 함께 適當時間配定基準에 依한 家政科 教育이 實施되었고 지금까지 4차에 걸쳐 改正되었었다.

現行 教育課程은 1981年 12月 31日 文教部 告示 第442號에 依해 改正된 것으로 원만한 人間關係와 協同하는 生活態度, 衣·食·住生活에 必要한 基礎的 知識과 技能習得, 進路探索과 勤勞 및 職業을 存重하는 態度함양등을 目標로 1學年에서 3時間, 2學年에서 4~6時間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指導內容은 크게 家族生活, 靑少年의 食事, 靑少年의 衣服, 家庭과 職業, 家庭生活空間, 家庭生活과 資源活用등의 6개 領域으로 構成되었다. 즉, 學年別로 各各 4개의 領域을 다루되, 靑少年의 食事과 衣服은 2개 學年에서 모두 다루고 家族生活과 資源活用은 1學年에서, 家庭의 生活空間과 職業은 2學年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다. 家政科의 指導 領域과 學年別 指導內容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도 내 용	
	1 학 년	2 학 년
가족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 우리 가정 ○ 가정과 사회 	
가정생활과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자원 ○ 물적자원 ○ 자원과 가정생활 	
청소년의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 ○ 식품 ○ 식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이용 ○ 식사관리 ○ 식생활의 향상
청소년의 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차림 ○ 옷감 ○ 앞치마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마련하기 ○ 의복건사하기
가정의 생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공간계획 ○ 주거위생 ○ 실내장식 ○ 정원계획과 관리 ○ 가정기기
가정과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사회와 가정생활 ○ 나와 직업

IV. 外國의 中學校 家政科 敎育

1. 外國의 家政科 敎育 現況

家政을 하나의 교과로 正規學格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美國의 경우 18世紀末 女學生에게 재봉을 가르친 것을 嚆矢로 요리, 육아등의 內容이 차츰 첨가되었다.

오늘날 家政科 敎育은 世界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國家·社會의인 要求, 學制, 義務敎育率限 등에 따라 編制 및 時間配當基準, 科目의 性格과 名稱, 指度內容등을 달리하면서 실시되고 있다. 中學校 水準에서의 家政科 敎育은 대부분의 國家에서 數學, 自然科學, 外國語등과 함께 敎養敎育으로 履修시키고 있는데 各國의 家政科 敎育現況을 敎科

編制를 中心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家政은 國家에 따라 實科, 工藝, 手工藝, 技術·家政등 그 명칭이 多樣하며 比較된 國家 모두가 必須敎科로 가르치고 있다. 時間配當에 있어서는 全體履修時間의 7.7%~10% 정도를 家政과 관련된되는 敎科에 配當하고 있다.

2. 男學生을 爲한 外國의 家政科 敎育

男學生을 위한 家政科 敎育의 시작은 19世紀 中半부터 各國의 産業化로 인한 經濟·社會 構造의 變化에 其因하는데 그중에서도 家族의 機能과 勞動市場의 變化는 男學生도 學校敎育을 通하여 家政을 배워야 한다고 必要性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여러 나라에서 男學生에게도 家政을 敎養敎育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 몇 나라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美 國

美國의 家政科 敎育은 다른 어느나라 보다도 大衆의이며 國民學校, 中學校, 그리고 高等學校에서 敎養敎育과 職業敎育의 二重的 역할을 하고 있으며 中等學校에서의 家政은 Home Economics Homemaking, Family Life, Consumer Edcnation 등 多樣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男學生을 위한 家政科 敎育은 1922年 Idaho 를 시작으로 1920年代 末에는 거의 모든 州에서 男學生에게 家政을 가르쳤다. 또한 家政을 履修하는 男學生 數도 계속 증가하여 Condition of Education(1981)에 의하면 全體 男學生의 29.6%가 國民學校와 中學校에서 家政을 배우고 있으며, Forecast for Economics(1984)가 50개 州의 장학사를 대상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 그중 18개 州에서 男學生의 家政科目履修率이 증가되고 있음을 報告하고 있다.

(2) 유럽 國家들(스웨덴의 경우)

1980년에 改正된 스웨덴의 敎育課程에 의하면, 국어, 아동학, 미술, 영어, 가정 스포츠, 수학, 음악, 수공예등 9개 科目을 必須로 하고 있는데 이들 3개 科目, 즉 아동학, 家政, 工藝가 모두 家政科와 관련된되는 內容들이다. 한편 세 科目의 履修비율은 全體 履修時間의 10%정도를 차지하며, 工藝는 手藝와 木工·金屬 두 종류의 만들기로 構成되

각국의 중학교 교과 편제 및 교과별 주당 시간 배당 비교

성격	영역	국가		영 G7-9	국 G7-9	프 G8-9	스 랑 스 G8-9	서독(NW 주) 주요학교 G9	일 G.8	스 웨 덴 G8-9	중 G.8	국 G.8	국 G.8
		미국(New York) 주 G8**	영 G8-9										
필수	언어영역	국어 15.4(%) (외국어)	국어	국어 18.5(%) 생활언어 11.1 (외국어)	국어 12.1(%) 영어 9.1	국어 14.7(%)	국어 10.0(%) 영어 9.0	국어 19.5(%) 영어 6.5~9.8	국어 14.3(%) 영어 8.6~14.3 한문 2.9~5.7	국어 14.3(%) 영어 8.6~14.3 한문 2.9~5.7	국어 14.3(%) 영어 8.6~14.3 한문 2.9~5.7	국어 14.3(%) 영어 8.6~14.3 한문 2.9~5.7	국어 14.3(%) 영어 8.6~14.3 한문 2.9~5.7
		수학 15.4	수학	수학 14.8	수학 12.1	수학 11.8	수학 12.0	수학 9.8~12.7	수학 8.6~11.4				
	자연과학 및 수학영역	과학 15.4	과학		자연과학 6.1	이과 11.8	자연과학 12.6	과학 8.6~11.4					
	사회과학영역	사회 15.4	역사 지리 종교	역사 지리 경제 11.1	사회학 종교 6.1	사회 도덕 3.1	역사 지리 종교 도덕 19.5	사회 5.7~8.6 국사 5.7 도덕 5.7					
선택	예·체능영역	보진 7.7 미술 7.7 음악 7.7 체육 7.7	미술 음악 체육 게임	미술 7.4 음악 및 체육 11.1	미술 6.1 음악 9.1 스포츠	미술 5.9 음악 5.9 체육 10.5	미술 6.5 음악 3.2 체육 3.2	미술 5.7 음악 5.7 체육 8.6					
		실과 7.7	실과(공예와 기술) 가정	실과(수공예) 5.6	기술 9.1	기술 8.8	수공예 5.0 가정 4.0 아동학 1.0	수공예 6.5 가정 6.5	실업 11.4~17.1				
주당 시수	통합영역 및 기타	(통합과목)					종합교과 32.0	종합교과 32.0	31-33	33(40-45분)	31-33	34-36(50분)	
		32.5	35-40	26.5-27.5 (50분)	33(45분)	35(50분)	33(40-45분)	33(40-45분)	33(40-45분)	33(40-45분)	33(40-45분)	33(40-45분)	33(40-45분)
비고			외국어 (불어 등) 컴퓨터교육 생인준비교육	라틴어 7.4 그리이스어 2 생활언어 11.1 보통생활영어	필수선택 9.1 심화학습 9.1	선택교과 11.8 특별활동 4.2	선택교과 11.0	선택교과 6.5	선택교과 6.5	선택교과 6.5	선택교과 6.5	선택교과 6.5	선택교과 6.5
			학교에 따라 "디자인" "환경" "이문합" 이 과선 교수 될 수 있음										

* 이 표는 1978년 이후 최근 6.7년 사이의 各國 教育課程文書에 의한 것임.

고, 家政은 위생, 환경, 소비, 인간관계등 4개 領域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3) 日 本

美國이나 유럽 國家들에 비해 비교적 産業化가 늦은 아시아에서는 男學生을 위한 家政과 教育이 늦게 시작되었다. 日本의 경우, 1958年 國家 水準에서의 教育課程이 制定되어 男學生은 技術, 女學生은 家政을 가르치던 것을 1977~78年 教育課程 改正에서 1982년부터 抗術·家政이란 명칭하에 男學生도 家政을 3年동안 必須로 하며, 3學年에서는 선택으로 履修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美國과는 달리 男女 學生이 같은 內容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男學生은 피복, 식물, 주거, 보육등의 家政 領域中에서 한개 領域을 擇하여 履修하도록 되어 있다.

(4) 中 國

中國의 現行 教育課程은 1972년에 改正된 것으로 中學校에서 工藝와 家政 科目中한 科目을 男女의 區分없이 必須로 선택하여 3年間 履修시키고 있으며 3學年에서는 農業, 工業, 商業, 水産등과 함께 선택 과목으로 履修시키고 있다. 家政의 지도 내용은 인간관계 및 예의, 家庭工藝, 家庭의 食生活, 衣生活, 住生活, 個人과 家庭保健의 6개 領域을 各 學年에서 各 履修하도록 하고 있다.

V. 男女 學生을 위한 家政科 教育課程 分析

家政科的 教育課程도 다른 教科들과 마찬가지로 國家·社會의 要求, 學問의 體系와 發展 그리고 學生들의 變化등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改正되고 있다. 여기서는 男學生에게 일찍부터 家政科 教育을 시켜오고 있는 美國의 教育課程, 그중에서도 現在 7學年과 8學年에게 必須科目으로 履修시키고 있는 Pennsylvania 州의 동부지역을 對象으로 蒐集·分析한 教育課程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教育課程 體制

教育課程 文書의 體制는 學區(School District) 또는 學校마다 다르기 때문에 一括하여 說明하기

는 어려우나 一般的으로 教科의 哲學과 目標, 指導內容과 教授·學習 活動, 教授·學習 資料, 평가 및 教育課程운영과 관련된 사항등이 提示되고 있다. 그밖에 모든 教育課程은 序論에서 Sex-Equity를 강조하고 있는데 All males & females, Both boys & girls, All boys & girls, All Students, All youth 등이 그 보기이다.

2. 目 標

目標은 크게 學科目標, 一般目標과 수업목표의 3단계로 진술되고 있는데 조사對象의 60%가 一般目標을 提示하였고, 30%가 學科目標과 수업목표를 提示하고 있다. 提示된 學科目標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個人과 家庭生活的 향상
- 문제해결 能力의 開發
- 知識과 技術에 對한 폭넓은 탐색
- 家事에 必要한 技術습득
- 個人의 잠재적인 能力開發
- 職業世界에 對한 이해
- 의사결정 能力開發

3. 指導領域과 內容(Contents)

指導領域은 크게 食生活, 衣生活, 住生活, 家族關係, 消費教育으로 構成되었으며 食生活和 衣生活 領域은 모든 學區가 7學年과 8學年에서 다루고 있다. 學年別 指導領域은 學區에 따라 다른데 대개 한 學年에서 2~4개의 領域을 다루고 있으며 食生活を 제외한 다른 領域은 그 명칭도 多樣하였다. 蒐集된 教育課程의 指導領域 빈도를 學年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提示된 指導內容의 상세화 정도도 多樣한데 대개는 한 領域에서 10~12개의 指導要素를 提示하였으며 學區에 따라 2개 또는 16개를 提示하기로 하였다. 食生活, 衣生活 그리고 家族關係 領域에서 빈도가 높았던 內容과 적었던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住生活 領域에는 家庭환경의 改善 방꾸미기, 家庭을 위한 工藝, 家庭원예, 가정기계 다루기와 수리등의 內容이, 소비교육 領域에는 意思決定단계, 의사결정과 소비자, 소비자의 역할, 돈의 價値와 관리, 賢명한 購入등에 관한 內容이

영역명		학 명	7(N/%)	8(N/%)	계(N/%)
식생활	Foods & Nutrition		10(100)	10(100)	20(100)
의생활	Sewing/Clothing & Fextiles		10(100)	10(100)	20(100)
주생활	Housing & Home/Housing/ Home Management		1(10)	2(20)	3(15)
가족관계	Human Development/ Human Relationship/ Family Living/Family Life/ Hamam Development & the Family		6(60)	5(50)	11(55)
소비교육	Consumer Education/Consumerism		1(10)	2(10)	3(15)

구분	식생활	의생활	가족관계
빈도가 높은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용구의 사용과 계량하기 기초식품군 영양소 부엌의 사용 조리기구의 사용 상차림과 식탁예절 식품의 위생과 관리 식사계획 조리의 기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봉틀 사용하기 간단한 작품만들기 윗옷 만들기 손 바느질 섬유의 종류와 특징 의복의 기능 의복의 수선 옷본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과 좋은 인상 교우관계와 교제 몰차림 아이돌보기 가족의 기능 개인과 가족 가족원의 역할 가족의 종류와 특징
빈도가 낮은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서비스와 생산의 차이 상품화된 식품의 종류 식품구입 조리중의 화학변화 아침의 중요성 여러나라의 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류의 대량생산 직조의 종류와 방법 의복의 역사 칼라의 특징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의 관리 건강과 스트레스 자원의 기본 의사전달의 종류와 역할, 수준, 방법

포함되었다. 한편 소비교육 영역을 따로提示하지 않은 學區에서는 食生活, 衣生活 등 各 領域에서 소비와 관련된 內容을 다루기로 하였다.

4. 教授·學習 戰略과 資料(Instructional Strategies & materials)

수집된 10개의 教育課程中 5개의 教育課程에서 教授·學習 戰略과 資料를 提示하였는데 教授·學習戰略은 學區에 따라 最高 16종의 學習戰略을 提示하였는데 가령 빈도가 높은 것은 傳統的인 강의 방법을 비롯하여 실험, 실습, 토의, 시청각 교재

의 이용 시범수업, Role-play, Game 등이다.

한편 교수, 學術資料는 各 領域에 따라 5~6종의 資料가 提示되었는데 教科書, Work-Book (Work Sheet), Handout 과 같은 인쇄물, 실험·실습을 위한 資料, 영사 및 패드 資料등이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5. 評價 (Test & Evaluation)

評價는 크게 評價의 戰略과 성적 제시 방법(Grading Scale)이 提示되었는데 評價의 戰略中 教師가 만든 평가지에 의한 評價, 作品과 보고서의

評價, 實驗室에서의 經驗評價, 교실에서의 수업참여도등은 모든 學區에서 提示하고 있는 方法이었다. 그밖에 學區에 따라 숙제, 教師의 관찰, 상업용 문제지등에 의한 평가방법도 제시하였다.

6. 運營상의 留意點

運營상의 유의사항에는 時間配當, 教授·學習을 위한 조건등이 提示되었다. 그중에서 時間配當을 보면 學區에 따라 7學年에서는 최고 45시간에서 최저 20시간을, 8學年에서는 최고 90시간에서 최저 20시간을 할 수 있었으며, 7學年의 37.5시간, 8학년의 43시간이 每年 平均履修시간이었다. 한편 1時間은 學區에 따라 40분에서 46분까지 폭이 있었다.

VI. 要約 및 提言

中學校에서의 家政科 教育은 우리나라는 물론 外國의 여러 나라에서 敎養教育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國家에 따라 그들의 學制內에서 총이수시간의 10%內外를 家政에 配當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 비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한편 各國의 産業化는 中學校 家政教育에 對한 要求를 달라지게 하였으며, 그 中에서도 男學生에 對한 家政科 教育의 必要性이 要求되었고, 美國의 경우 1920年代부터 男學生에게도 家政을 가르치고 있다. 指導內容은 주로 食生活, 衣生活 그리고 家族關係와 關聯되고 內容으로 構成되며, 그밖에 住生活이나 消費生活이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年 第4次 教育課程 改正에서 男學生에게도 家政을 가르쳐야 한다는 學界의 意見이 있었으나 教育課程 編制에서 家政은 事業·家政敎科에 속하기 때문에 時間配當等에서 技術科와 關聯지워서만 생각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家政에서의 男女 役割變化, 職業生活에 對한 女性의 욕구變化, 家庭生活의 單純化등은 男性도 家庭生活에 對한 知識과 技能을 必要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家政科 教育은 男學生에게도 가르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中學校 教育課程 編制에서 家政의 위치를 國語, 外國語, 數學, 社會등과 같은 水準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中學校 家政科의 性格을 규명하여 國民學校 實科, 高等學校 家政과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3. 中學校 家政科의 內容構成은 체계적으로 하여 男女學生에게 적합한 內容을 선정·조직해야 한다.

4. 家政科의 教授·學習에 必要한 多様な 授業方法과 資料를 開發해야 한다.

5. 敎師養成기관의 教育課程이 中學校의 教育課程과 연계를 갖고 開發되어 質 높은 敎師를 養成해야 한다.

6. 大學 또는 中等學校에서 家政科 教育에 계속적으로 關心을 가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1. Barkley, Margaret V.(1980). Redefining the Basic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Illinois Teacher*, 23(4), 185-187.
2. Byrd, Flossie M. (1970), A Definition of Home Economics for the 70'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3. Choi, Syn-Duk(1975), Social Change and the Korean Family, *Korean Journal*, 15 (11), 8-9.
4. Hughes, Ruch Pierce(1982), 25 Years of High School Home Economic and a Look Ahead. *Illinois Teacher*, 25(4), 159-160.
5. Irmintraut, Richarz (1979). A New Concept of Household Education as a School Subject. *New Trend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1, 20-21.
6. Kim, Hyon-Ja (1971). The Changing Role of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11 (5), 21-24.
7. Mead Cheryl (Eds.). (1984). Home Economics Education: A State-By State Report. *Forecast for Home Economics*, 29(9), 42.
8.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1977).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Guide*. Tokyo,

- Japan: Government Printing Office, 81-95.
9.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81). *The Condition in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48 & 94.
 10. Pennsylvania Advisory Council (1983). *Pennsylvania Advisory Council on Vocational Education*. Harrisburg, PA: Pennsylvania Advisory Council Printing Office, 8 & 37.
 11. Pittsburgh School Board(1983). *Occupational, Vocational and Technical, and Home Economics Courses*. Pittsburgh, PA: Pittsburgh School Board Printing Office.
 12. Willhite, K. (1983). *Title X: Evaluating Equity in Secondary Education*. PA: Department of Education.
 13. 주경란 외(1982). 여성인력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93-95.
 14. _____ (1978). 장기인력수급전망 —1977-'91—과학기출처.
 15. _____ (1980). 인구 및 주택센서스 잠정보고,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6. _____ (1982). 중학교 교육과정, 문교부
 17. 教育部 (1972). 國民中學課程標準, 臺灣
 18. 김춘일 (1984). 中學校 敎育課程 國際比較 研究, 한국교육개발원.
 19. 신세호 (1986). 韓國人의 男女役割觀,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남·여학생을 위한 가정교과 중에서 의생활 내용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成 和 慶

중학교에서 가정교과가 5차 교육과정 개정안이 실시되는 1990년 부터는 부분적이거나 남학생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家政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과가 위축되어 간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최초로 남학생에게 가정을 가르친다고하는 발전적인 일면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가정학과가 가정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전공별로 세분되어 가정학의 발전은 눈에 띄고 있지만 가정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서점의 교과교육 코너에 가보면 가정교과교육에 관한 서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며 다른 교과와는 학기마다신간이 나오고, 各科教育의 틀이 확실히 잡혀가고 있음을 보면서 반성을 하지만 저 자신도 아무런 업적을 내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을 하자면 가정학 전공에 관한 강의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매이게 된다고나 할 수 있겠죠.

지난해 한·일 가정학 세미나의 가정교육 분야에서도 한국, 일본 두나라 모두 가정교과 교육의 문제점으로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사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가 한·두곳 뿐이고 그나마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현실에서 가정교과를 남·여학생에게 발전적인 면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교과의 모체인 가정학 전공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과 깊이있는 연구로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 가정교과의 성장을 어떻게 기대할 것이며 위축된다. 한들 누가 막아 주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중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가정학회의 관심은 필연적인 것이며 연구 분위기의 조성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I. 가정교과에서 의생활 분야

의생활 분야는 현대 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서 급속히 변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의생활 혁명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산업혁명 이후 의복의 재료가 풍부해지고 다양해 졌으며 봉제 기계, 기구의 발달과 기술의 향상은 다량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따라서 가정내 일이었던 바느질이 공장 생산으로 바뀌어 산업화 됐고, 상류층의 독점물 이었던 사치스런 의복에서 누구나 개성있게 입을 수 있는 의복으로 바뀌어 패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서 의복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의복이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외에 국가경제적인 면에서 정책산업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 면으로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임에 틀림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복식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서 연령이

나 직업, 경제적인 수준은 물론이지만 미적인 감각 수준이나 가치관까지도 짐작케 하기 때문에 복식을 통한 자기 표현의 욕구는 연령이나 성별에 제한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를 봐도 自我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타인을 의식하게 되면 자기를 남에게 나타내려 하는데, 이 때 어린이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눈에 띄는 옷을 입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부터 의생활에 대한 바른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복이라고 하면 미적인 조화를 먼저 생각해서 장식적인 기능을 우선으로 하기가 쉽지만 그것 못지 않게 보호적인 기능을 알아서 합리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의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를 보면 어린 시절에는 의복에 무관심한 것을 남성다운 것으로 여겨 무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라납니다. 그 후는 부인의 조력에 의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현대의 가정은 크게 변하고 있어서 가족수가 적고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등으로 남·여간의 역할이 불분명 해져서 衣食住生活을 여성 혼자 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가정내에서 가족들은 자기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여학생이 모두 자라서 가사만을 돌보는 주부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이 남학생도 성인이 될 때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학생에게 이러한 생활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어서 조선조 李退溪선생은 교육에서 禮와 義를 강조하면서 禮중에서도 衣冠의 整齊와 飲食의 절차, 進退의 법칙을 알고 생활에서 지켜야 한다고 했고, 英國의 Spencer는 교육의 목적을 가정생활 준비, 사회적 자질 육성, 여가 선용 교육, 직업 준비, 건강관리에 두어야 한다고 해서 全人的 社會적인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衣食住 등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II. 남·여학생을 위한 의생활 교육 내용

남·여학생을 위한 의생활 교육 내용은 5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이 여러차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편의상 여기에 인용해서 여학생에게만 가르칠 가정교과에서의 의생활 내용과 남·여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할 가정·기술에서의 의생활 내용을 대비시켜 놓고(다음에 표로 제시함) 먼저 가정의 의생활 내용 중에서 남·여학생 모두에

가정과 가정·기술의 의생활 내용

교과목 단원 학년	가 정	가정·기술
1	청소년기의 의생활 (1) 옷차림 (가) 의복의 기능 (나) 의복의 종류 (다) 옷입기 (2) 옷감 (가) 섬유의 종류와 특성 (나) 옷감의 종류와 특성 (3) 생활용품 만들기 (가) 모양과 재료 고르기 (나) 본뜨기와 마르기 (다) 바느질하기	청소년기의 의생활 (1) 옷감 (2) 옷차림 (3) 생활용품 만들기
2	의생활 관리 (1) 의복 마련하기 (가) 의복계획 (나) 의복의 생산과 유통 (다) 의복의 선택과 활용 (라) 의생활 기기 (마) 간단한 의복 만들기 (2) 의복 건사하기 (가) 세탁 (나) 보관	의복 관리 (1) 의복계획 (2) 의복의 생산과 유통 (3) 의복의 선택과 활용 (4) 간단한 의복 만들기 (5) 의복건사하기

5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중에서

게 알 가치가 있는지, 유용한 지식으로서 앞으로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인지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의생활 내용을 보면

(1) 청소년기의 의생활 단원 중에서 옷차림의 내용은 의복의 기능, 의복의 종류, 옷입기로 구성되는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은 옷을 왜 입는지,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알아서 현재와 앞으로의 의생활에서 때와 장소 그리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할수 있는 바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옷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며 예의 바른 옷입기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추가해야 할 것은 인체와 의복과의 관계 즉 기온과 의복, 활동과 의복등을 알게해서 외모에 치중하고 유행만을 추구하려는 의생활 태도를 합리화 시킬 수 있으면 합니다.

다음은 옷감으로 섬유와 특성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옷감의 종류와 특성이 내용으로 포함되는데 섬유에서 실을 거쳐 옷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므로써 의복을 선택할 때 상품의 설명을 이해하고 구입하게되며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 내용은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지식이므로 남·여학생 모두에게 교육되어야 합니다.

세계 생활용품 만들기인데 다음 단원의 간단한 의복 만들기과 함께 실습을 해야하는 내용으로 찬반의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반대 의견을 보면 가사과목에서 실습을 다루므로 가정에서 실습을 하는 것은 이중적인 교과 편성이며, 쓸데없는 물건을 만드느라고 학생들의 시간 소모가 너무 많다는 것, 또 기성복이 혼란케바느질을 배울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사는 선택과목이므로 택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기성복을 주로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수리할 능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옷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옷을 더 잘 선택할 수 있으며 생산에 대한 노고를 안다는 것 또한 중요 합니다.

그외 이외에도 학생들의 지식적인 수준은 차츰 높아지는 반면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부족한 교육

의 흐름에서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치마를 만들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묻지만 화학약품으로 과학실험을 한 후의 결과 처리와 비교해 볼 수는 없을는지요.

(2) 의생활 관리 단원 중에서 의복 마련하기의 내용은 의복 계획, 의복의 생산과 유통, 의복의 선택과 활용, 의생활 기기, 간단한 의복 만들기로 짜여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복 생산 현황은 과잉 현상을 나타내서 시장, 백화점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의복이 산재해 있고 이 의복들은 재료, 디자인, 용도, 가격이 각양 각색이며 선전 광고의 유흥속에서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지기 쉬워서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더구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시기의 학생들에게 계획적인 의생활 방법을 알게하고 의복의 선택과 활용에 대한 지식은 적절한 교육 내용입니다.

남학생은 지나치게 의복에 무관심하거나 가족의존적인 경우 바로 잡아줄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 의복 전사하기인데 세탁과 보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복의 수명은 전사하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의복재료도 다양하지만 부자재가 다양해서 전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같은 기계사용이 늘고 있어 세탁이 힘든 빨래가 아니고 조건에 맞도록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과학적인 빨래로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택과 사용 방법도 의복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환경오염이나 공해와도 관계가 되고 있으므로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가정·기술로 통합했을 때의 내용을 보면

우선 양적인 면에서 반으로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과 내용을 체계있게 세울 수 없는 것은 당연 합니다. 따라서 의생활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기대할 수 없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 교육으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 됩니다.

Ⅲ. 요약

(1) 가정교육분야는 가정학을 모체로 하고 있으므로 가정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로 참여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2) 사회에서의 남·여 평등 실현과 가정내에서의 부부 역할 변화등의 현실을 수렴해서 중등교육에서도 남·여학생 모두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즉 가정생활 준비가 필요합니다.

(3) 의복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성별, 연령, 사회계층에 제한 없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므로 남·여학생에게 교육할 가치가 있습니다.

(4) 5차 교육과정 시안 내용에서 의복위생을 부분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가정·기술로 통합시킨 교과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충분한 내용을 담을 수 없어서 가정을 독립된 교과로 개편해서 남·여학생에게 공통으로 이수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학교 남·녀공수 가정과목의 식생활 교육내용에 관한 제안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이 일 하

식생활은 주변환경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개인적인 요소는 물론, 사회적 배경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식품의 수급, 경제적 여건, 생활방식 등에 따라 식생활은 변천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식량문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변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그 환경하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은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사회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생활환경, 문화, 가치관, 의식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고 핵가족화와 여성 취업율의 증가, 남성의 해외취업, 장기출장근무등으로 남성도 식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중학교 가정과목의 남·여 공수문제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과정의 식생활 교육은 올바른 식생활을 통하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현대 생활구조에 적합하며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교육 방법으로 영양과 식품의 원리 및 식생활 기술을 익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영양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Mead 씨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영양이론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이론이 식생활에 풀이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식생활교육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개개인이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될 것이다.

교육내용은 국민학교 실과에서 습득한 지식은 토대로 하여 보다 폭넓게 다루어져야 하며 타 교과 의 수준에 준하는 심도로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종래에는 가정과목 내용 전부를 1,2,3 학년에 가르쳐 왔기 때문에 식생활 분야가 몇 단원씩 분산되어 3년동안 배우게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내용의 체계를 잃어갈 위험이 있었고 피상적인 내용에 그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가정과의 내용을 3년에 다칠 수 있도록 하되 학년별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즉 가족생활, 주생활등은 1학년 과정에서 다루고 식생활은 2학년 과정에서 의 생활은 3학년 과정에서 다룬다면 각 분야별로 체계있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가정과목에서 문제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교과 내용이 너무 피상적이면 원리를 파악하기 힘들고 설득력이 약화되기 쉽다.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원리에 대한 응용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단순히 기술을 암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영양원리나 조리원리등을 깊이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원리에 입각하여 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하고 기술을 익히도록 하여 이론만이 아닌 산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남·여가 공수한다고 해서 현재 교육하고 있는 내용과 다를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되어 현 내용과 대체로 같은 맥락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내용의 깊이를 좀더 심화하고 내용을 현대생활에 비중을 두어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내용은 크게 분류하여 영양원리, 식품선택, 영양원리의 응용, 조리원리, 식품보관 및 위생, 식생활 관리로 나누었고 각 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개괄적으로 간추려 보

면 다음과 같다.

I. 영양원리

영양원리는 식생활 교육 내용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양에 관한 지식이 없기 기호나 습관에 따라 식품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을 도모하기 어렵다. 영양문제는 지역이나 풍토, 문화, 시대에 따라 여러 양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영양교육이 항상 필요하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가 가속되었고, 농업의 발달, 경제성장, 도시집중 현상이 일어나 식품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영양문제의 양상이 과거에 비해 매우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초점을 두고 영양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영양지식은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지식이 없기 과거의 관습대로 매일의 식사를 답습할 때와 영양지식을 가지고 식생활에 입할 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각 영양소의 체내 기능을 알고, 영양소의 식품소재,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식생활에 입하면 식품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선택을 잘하면 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균형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바른 영양지식이 있으면 그릇된 영양정보나 광적으로 유행했다 사라지는 식품이나 식사법(Food Fadism)등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의 주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I. 식품 선택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식품은 무수히 많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공업이 발달하고 여러나라 문화와 접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더욱더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Food Pattern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아침에는 양식으로, 점심에는 중국식으로, 저녁에는 한식등으로 소위 음식문화의 혼돈기라고 할까 아니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러한 식품 환경에서 어떻게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가? 어떻게하면 균형식사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선택을 잘 하려면 우선 각 식품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그 식품의 영양가(식품분석표활용), 그 식품이 속한 식품군이냐 그 식품의 유용성을 알아야 하고 가공식품의 경우는 가공 방법과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식품에 대한 기초 지식과 앞에서 언급한 영양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식품을 선택할 때에 균형식사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쉽게 식품선택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초 식품군이냐 식품 교환법(Food Exchange System)을 활용하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최근들어 Instant 식품이나 Fast food의 보급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기호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 가족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외식산업이 융성해지고 가족당 외식의 횟수와 외식에 소비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Food Service의 구조와 관리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간식(Snack)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간식에의 의존도도 상당히 높아져 새로운 영양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간식의 이용도가 어느 연령층보다 높아 간식의 내용과 영양가, 그 이용방법등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II. 영양원리의 응용

영양원리는 개인의 영양관리에 직접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연령, 활동량, 건강상태등에 따라 영양소 필요량이 다르게 되므로 이에따라 영양원리를 응용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유아기, 학령전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임신·수유기, 노년기등 각 연령층의 영양관리의 양상이 다르다. 또 환자의 경우 질병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도 영양관리의 방법이 다르다. 개인의 식이 Pattern에 따라서도 영양문제가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의 체격이나 활동수준에 따라서도 영양소 요구량이 다르다. 이와같이 개인이 처한 환경조건이 다양한데 이러한 환경조건에 알맞는 영양원리의 응용방법을 개발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V. 조리 원리

식품을 재료로 하여 조리과정을 거쳐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각 음식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각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조작방법은 몇개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삶기, 찌기, 볶기, 굽기, 졸임, 부침, 절임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조리 방법과 용도를 익히고 음식 만드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음식 하나 하나의 조리 방법을 실습하지 않아도 recipe 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라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리 과정중에 일어나는 식품의 성분 변화에 관한 심도있는 이론 교육이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음식의 맛, 영양가, 식품의 색소와 질감등의 변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론을 실증하는 실험을 함으로서 각 식품에 따라 효율적인 조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조리기와 조리용 연료 역시 더욱 편리하게 개발되어 가고 있다. Microwave Oven, Gas Oven, 여러가지 전기제품들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어 새로운 조리기기의 사용법과 그에 맞는 조리방법의 개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식품보관 및 위생

산업 사회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식생활 관리 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한 가구당 가족수의 감소, 식품유통의 체계화, 냉장고나 냉동기동 식품 보관기기의 보급등으로 식품구입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매일 식품을 구입하던 것이 최근에는 구입횟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구입한 식품을 보관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었다. 식품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때에는 식품의 신선도가 저하

되고 영양가가 감소하며 식품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식품을 보관할 때에 냉장이나 온장, 냉동 또는 해동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식품 성분의 변화, 식품의 변패,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 식품 중독증등에 관한 내용에 비중을 두어야 될 것이다. 공장에서의 식품 가공법이나 저장법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단기간 식품 보관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않을까 생각한다.

이외에도 단체 급식소나 대중 음식점, Fast Food Chain, 일반 가정의 부엌의 청결·위생문제도 다루고 세제의 종류와 내용 및 효율적인 사용방법등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VI. 식생활 관리

식생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개인이나 가족이 처한 환경에 합당하여야 한다. 식사를 계획하고 식품을 구입하여 조리하고 섭취한 후 뒷처리하기까지의 식사 전반에 걸친 작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여러가지 인자가 관여한다.

우선 개인이나 가족의 식품기호를 만족시켜야 하며 적절한 영양관리를 해야 한다. 또 가족의 수입이나 식생활에 대한 가치관에 맞는 식생활을 해야한다. 시간관리, 노력관리등을 효율적으로 해야한다. 이러한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식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될 것이다.

현대는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하여 기능주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식생활의 정신적인 측면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식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도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학교 남녀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내용연구

—주생활 분야—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이 경 회*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가정관리학과

홍 형 옥

교육이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인간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방향이란 교육목표나 목적을 의미하며 의도적인 행위란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교육내용 및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육목적, 내용, 방법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학생 개인의 발달 및 특성,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내용의 학문적인 구조, 학습의 전이효과,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작성되므로 그 개발은 용이하지 않다.

우리나라 중등 교육을 위한 가정과 교육내용은 이미 4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5차의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정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미 이루어진 기존 교육과정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공통이수의 필연성의 대두는 전체 교육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내용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학 분야에 대한 중등 교과과정에 대하여도 새로운 교과과정을 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발표자.

I. 현 사용 교과목의 목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업·가정의 중등교과 일 반 목표를 보면;

1)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시켜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창조적인 태도로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산업과 직업 및 가사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시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근면하고 생산적인 직업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되어 있어, 직업교육의 성격이 많으며 교과목의 목표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2학년 가정교과 중 주거관계 항목에 관한 교육목표를 보면, 주택의 공간계획, 위생 등 주생활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영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고 되어 있는바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 현 교육과정의 문제점

현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보면;

1) 기억중심 암기위주의 학습상황에서 벗어나지

〈표 1〉 주거 관련 교과 내용 비교

5학년 실과	6학년 실과	중 1 생활기술	중 2 생활기술	중 2 가정	가정기술 통합교과 (중1) 교육개발원 <개정시안>	가정기술 통합교과 (중2) 교육개발원 <개정시안>	고등학교 가정
I. 살기 좋은 집 1) 편리한 집				I. 가정생활과 공간 1. 주택의 공간 계획 인간의 공간 생활 방식의 위치와 기능 2. 주거위생 계획과 환기 온도 습도 배수 3. 실내 장식 색채 커튼 가구 4. 정원계획과 관리 정원관리	가정기술 통합교과 (중2) 교육개발원 <개정시안>	II. 가정의 생활 환경 1. 주택의 공간계획 주택의 종류와 특성 가옥구성과 생활공간의 평면계획 2. 주거위생과 실내 생활비의 종류 3. 주거환경의 미화 실내장식의 계획 배치 정원관리	IV. 주생활 1. 주생활의 의의 주거의 기능 발달 주거 양식과 생활 2. 주택 설계 및 시공 가방의 기능과 실제 실내 장식과 가구 주택 설계 및 구조 3. 주생활의 관리 주거 계획 주거위생 주택의 영생 정원관리
3) 가구의 정돈과 성취	I. 평일의 증진과 보전	III. 제배			7. 제도의 기본 도면의 기능 신과 문자 물체를 나타내는 방법 제도의 실제		
2) 간단한 제도 와 도면 읽기	V. 제도의 기초		I. 플라스틱의 이용 II. 금속재료의 이용 IV. 전기의 이용 III. 기계의 이용 V. 가정용 기기의 이용과 안전				
4) 목공일 하기	VI. 목재의 이용						
8. 가정기기의 선택과 사용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창의력 개발이나 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 주거선택의 판단력을 기를수 있는 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측면이 무시되고 물리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있음).

2)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폭이 너무 좁다(다양한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주거 유형의 적합성을 다루지 않고 단독주택계획 과정만 다룸).

3) 학교교육의 교과 내용이 실제의 사회와 너무 격리되어 있다(생산자, 계획자로서의 측면만이 강조되고 선택자, 소비자로서의 측면이 무시됨).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교육본래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편파적이고 적응력이 부족한 인간을 양성해낼 우려마저 있다.

교육은 인간을 사회창조자, 또는 사회 개척자로 기르는 것이 그 본래 임무이므로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 사회속에서 학교교육의 내용은 사회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육과정은 무엇보다도 사회변화와 사회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생활하는 현 사회 실정이 토대가 되어 학생자신의 주변상황에 신속히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의 사회적 적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적합성이란 기능어는 유용성과 문화적인 일치성을 의미한다. 전자는 교육과정이 사회체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기능적인 필수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수단적인 실용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후자는 교육과정이 기존의 문화체제와 어느 정도 합치되는가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즉, 중등가정교육과정에서의 주거학의 교과내용은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회규범을 선도하고, 주거가치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간 중심주의를 중시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III. 현 교과내용의 검토

<표 1>에서는 현 교과내용의 학년간 연계와 국민학교, 중등, 고등학교간의 발달적 연계를 비교

해 보았고, 교육개발원의 중학교 가정·기술 통합 교육과정 내용(1986. 11. 26)과도 비교해 보았다.

검토결과 구체적인 현 교과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중·고등학교 과정간 교과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 체계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다. 즉,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특히, 중등 교과내용과 고등학교의 교과내용 체계는 거의 반복되고 있다.

2) 대부분의 교과내용은 이론적 물리적인 면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추구하는 내용은 빈약하다. 한편 단편적인 지식의 내용도 부분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기술되어 있다.

3) 다양한 주거 양식에 대한 선택과 이에 따른 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편중된 지식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예 : 단독주택중심).

4) 교과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들도 다양하게 제시하여 융통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5)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 내용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기초 분석이 요구된다. 즉, 현 교과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동떨어진 느낌을 주며, 학생들에게 도움이되는 실질적인 면의 반영이 미흡하다.

IV. 외국의 교육과정과의 비교

미국 Oil City 지역의 주거관련 교과과정(8th grade)을 보면 :

- 1) Basic tool 및 equipment 의 사용법
- 2) Housing, Home Furnishing and Equipment
 - *Family Sharing
 - space in the home(공간사용의 의무와 권리)
 - Sharing care of the home(주택관리의 기초, 집안일의 분담. 집안 손질에 필요한 도구. 건강, 안전, 안락, 편리, 美에 미치는 주택관리의 영향)
 - Sharing safety responsibilities(가정내 안전 장애요인)

***Creation of Home Enviroment.**

- Satisfying personal needs(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지적욕구)
- Elements and principles of design(디자인 요소와 원리)
- Furnishing, Arvangement, Care, safety (효과적 사용을 위한 가구배치요령, 관리, 완전)
- Storage(수납공간의 계획과 정리)

***Housing Horizons**

- Selection of Equipment(가족의 생활양식과 가족생활주기에 맞춘 기기의 선택 요령)
- Arrangement of furnishings(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이용한 가구배치)

미국 Erie 지역의 중등 가정과 교과내용을 보던 Housing and Home Furnishings;

- 1) sharing and cooperating in the home (역할과 책임)
- 2) household tasks.(집안청소, 관리)
- 3) what is home(개인의 욕구)
- 4) my room(개인공간의 계획)
- 5) crafts for the home(장식품 만들기)
- 6) improving my inside home environment (효과적 자원관리를 통한 안락한 가정환경 만들기)
- 7) improving my outside home environment (집주변환경 개선 방법알기)

이상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등과정 보다 개인과 가족의 환경으로서의 주거문제를 주택의 물리적 측면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단편적인 지식습득 보다는 생활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학문적 연계

가정·기술 통합교과의 住居分野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住居學(housing)’이라는 학문의 발전과 관심영역과의 연계일 것이다. 즉, 대학에서의 해당분야의 학문적 관심이 중·고등교정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보기 때

문이다. 그리고 학문적 발달과 관심의 방향은 그 시대의 人間, 가정,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를 두고 일정한 기간마다 중·고등교과서도 심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 住居教育學會(AAHE)는 연구 분야로서의 住居學을 ‘住居(product로서, environment로서 services와 process로서)와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定義하였다(AAHE Constitution, rev. 1982).

즉, 住居學 教育은, 짧게는, 사람들의 복지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과 이웃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길게는, 연구에 있어서 총체적, 생태적 관점으로 multidisciplinary approach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 인간 욕구로서의 Shelter에 대해 개인과 가족발달, 그리고 생활의 質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활상황의 관점에서 연구·교육해야 하며, 인구문제와 환경, 한정적 자원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代案的 住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住居는 인간을 위한 하나의 Product로서 소비재로서 구성되어 있고, 그 자체가 복잡한 소비재이며 사람을 위해 물리적 장소와 상징적 의미를 제공한다. 각 단위 주거, 주거 집단들은 여러 방식으로 조합될 때 이웃과 지역사회를 창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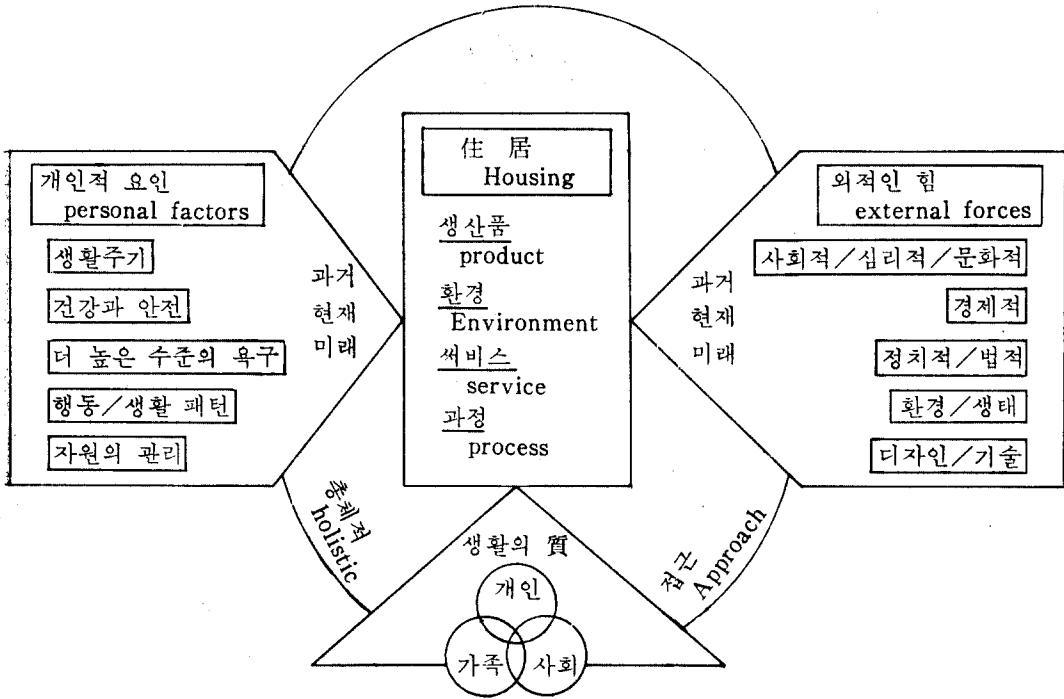
Environment로서의 住居는 작은, 혹은 큰 단위 환경(대지, 이웃, 지역사회시설, services)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또 住居의 Services的 측면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개발하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짓고, 팔고, 관리하고, 고치고, 재개발하여 Service로서의 주거의 유용성을 높이게 된다.

住居는 Process로서 개별 혹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 준비, 생산, 분배 그리고 Service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住居의 인식이 Shelter의 의미에서 product로서, environment로서, service로서 Process로서의 의미까지 확대되어 있다면, 그러한 住居學 研究分野의 범위와 研究目的이 결국 변화하는 가족과 주변환경의 질적 향상에 있을 것이므

〈표 2〉 주거학 분야의 개념구조



로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에도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참고로 1985년 AAHE의 20차 논문경연에서 입상한 B.J. White의 “Housing as a field of study”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housing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한 개념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표 2)는 연구 및 교육과정평가에 유용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적,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중·고 대학교육의 연계하에 중등학생들의 발전단계에 맞춰 통일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편성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Ⅵ.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의 주거 분야 교육과정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면;

1) 다양한 사회변화와 각종 주거 문제를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단편지식 전수를 위한 내용

구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일정한 계층이나 주거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양식과 주거유형, 사회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사회교육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3) 교육과정의 작성과 심의과정에서 국·중·고 등과정을 함께 다루어서 연계성 및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경험수준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져야 한다.

4) 현재의 주거상태를 포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과거의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 주거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 ‘기술’에 관한 교육과정도 ‘가정·기술’통합 교과인 만큼 ‘가정’내용과 통합적인 체계하에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住居와 관련된 ‘기술’내용중 재료, 기계, 전기등의 내용에 있어서, 중등과정에서는 ‘가정을 기본으로 한 기술내용’을 가르치고, 고등과정에서는 ‘직업을 기본으로 한 기술’을 가르치

도록 하여야 이해와 활용면이 증진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1973년 8월 31일 공표) 서울: 교학도서 주식회사, 1973.
2. 주정숙, 孫源喬,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운영의 현황 및 그 효율화 방안,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자연과학편, 제20집. 1982. 141-174.
3. 신상옥, 우리나라 여자중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 내용에 관한 고찰. 중대논문집, 제29집, 인문과 학편, 1985. 295-317.
4. 대한가정학회편, 가정교육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4.
5.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실업·가정과(가정·기술)교육과정 개정시안, 1986.
6. 洪性彌, 현행교육과정의 사회적 고찰, 초·중등 교육내용에 관한 고찰, 중대논문집, 제29집. 인문과학편, 1985. 295-317.
7. 국민학교, 실과, 5.6.학년용.
8. 중 2, 가정
9. 고등학교, 가정.
10. 중 1.2, 생활기술.
11. Home Economics Courses of Study for Middle Schools, The School district of the City of Erie, Erie, Pennsylvania.
12. Planned Courses for Home Economics, Oil City Area School District, Pennsylvania.
13. Betty Jo White, Housing As a Field of Study, *Housing and Society*, Vol.13. No.3. 1986. 188-204.

중학교 가정·기술의 男女共修에 따른 教科課程 構成에 대하여

—消費者教育 內容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박 명 회

I. 문제의 제기

現代社會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바로 加速的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지금까지 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으며 앞으로 계속 변화를 위해 출발을 할 것이다. 이러한 가속적 사회변화의 원인은 物質的, 技術的인 온갖 發見과 發明, 그리고 서로 다른 文化의 빈번한 접촉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人間은 정신적·신체적 遺産을 가지고 自然, 人間, 技術의 세 가지 환경속에서 살고 있으며 자연과의 투쟁을 통해서 技術的인 환경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바꾸고 또 이런 구조의 변혁은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를 자극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에게 그것에 대한 적응과 조절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환경 및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에는 한계가 있게 되므로 여기에서 인간에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指向이 필요하게 된다.

인간사회의 가장 보편적·본질적 집단인 가족에 있어서도 변화에 따른 機能變化와 더불어 家族成員 개개인에게 사회의 산업화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가정의 機能도 변화하게 되었다.

최근 文敎部에 의해 확정발표된 家政·技術의 男女共修의 문제도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의 변혁이라

는 점에서 우선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겠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당면해서 男·女 모두에게 필요한 인간 및 가족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목표와 내용영역 그리고 내용구성의 방향이 어떠한가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1981년 교육과정 개정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번 5차 교육과정 개정시 단원목표에 추가된 消費生活 측면을 중심으로 가정·기술교과에 있어서 消費者教育內容의 포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家政科 敎育과 消費者敎育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의 발달로 市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날로 多樣化·大量化되며 새로운 제품과 service가 개발되고 있으며, 상품은 한층 복잡해져 이를 올바르게 구별하고 판단하여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요즘같은 대량생산시대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생산자들의 세뇌적 선전활동에 의하여 조작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자의 主權을 침해하는 불량상품의 제조등 불건전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다. 그러므로 家計의 건전하고 합리적 消費活動 및 購買活動의 문제는 산업화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家庭의 機能이라 볼 수 있다¹⁾.

한편 최근 중·고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經濟敎育의 問題點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즉 自由經濟體制와 經濟原理에 대한 학생들의

理解不足의 원인은 經濟教育課程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理論중심의 경제교육보다 생활중심의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교육의 내용은 사회과 도덕과 및 가정과교과등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소비자교육은 초·중·고교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가정교과에서 상당부분의 소비자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중등학교 가정과교육 내용을 보면 각 교과영역단원중 상당부분이 소비자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의 대부분의 州에서 일반가정학교육 프로그램에 소비자 교육 영역을 채택하고 있다²⁾. 일본의 경우 국민학교에서는 사회圖工, 家庭, 體育, 道德등의 교과에서, 중학교의 경우 社會, 理科, 美術, 保健體育, 技術·家庭, 道德교과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現代社會, 理科工, 保健體育, 家庭一般등에서 소비자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정교과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교육되고 있는 실정이다³⁾.

家政科 教育과 消費者教育의 本質과 目標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 과교육의 본질은 어떤 경우에도 不變의인 것과 동시에 可變의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것은 人間自身가 「사람」이라고 하는 생물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동시에 세대를 이어가며 문화적 발전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存在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나, 이러한 양면성은 어느시대 어느사회를 막론하고 국가나 학교의 가정과 교육내용을 변화 발전시키는 이유가 되며 그 시대 그 사회에 필요한 인간의 생활을 指向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의 본질은 시대나 국가를 초월하여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조건 즉 健康, 幸福, 安全, 安定등과 같이 인간이 그가 속한 社會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족생활에 필요로 하는 根本的 條件을 根本的 本質이라고 하면 생존에 필요한 條件의 程度 및 내용이나 그의 구체적 매개물인 衣服, 食品, 住居, 金錢, 機械, 技術등은 可變的 本質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에 입각한 가정과 교육의 목표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人間의 생활을 통합적으로 받아들여 이것을 탐구

하고 창조하는 실천적 능력을 갖는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⁴⁾.

그러므로 현대에 있어서 가정과 교육은 통합적인 인간의 생활환경과의 相互關係중 家庭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생활의 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여기서 적응능력이라 함은 환경에의 적응과 동시에 환경의 창조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가정과교육을 이와같은 본질과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해 遂行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이 意思決定的 思考過程이라고 하고 있다⁵⁾.

한편 消費者教育의 본질적 理念과 方法은 다양한 價値가운데 자신에게 意義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選擇하고 그의 價値體系를 조합하는 가운데 여러가지의 對象·方法중에서 자자의 책임아래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自主意思決定的 能力을 개발시키는데 있다고 한다⁶⁾. 즉 소비자교육은 價値를 선택하고 조합하고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할 때 소비자 교육과 가정과 교육은 그 本質과 目標에서 同質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비자 교육과 가정과 교육이 모든 면에서 동질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교육의 방법, 교육의 내용, 자료의 이용, 對象등에 있어 서로 차이점은 있으나 상당부분이 共有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內藤道子は 가정과 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이러한 공통목표를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즉,

1. 인간으로서 남녀를 불문하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 좀더 나은 상태(환경)를 추구하는 것.
2. 좀더 나은 상태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3. 좀더 나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手段, 方法, 技術을 몸에 익히는 것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目標은 가정학에서 추구하는 人間生態學的 發想에서 기인된 것이다.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 家政科教育과 消費者 教育

앞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가정과 교육과 소비자

교육의 동질요소 및 공동목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정과 교과에는 이제까지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별로 포함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從來의 가정과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및 목표의 변화를 보면 1973년 개정시 국민학교 실과교육의 일반목표에

●가정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생산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제품의 선택, 구매, 사용, 관리등에 관한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

라는 항목이 있으며 1981년 교육과정의 교과목표에

●가정생활의 소비형태나 일용품의 유통구조를 이해하게 하고 생활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 활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현명한 소비자의 자질을 가지게 한다.

라는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1955년~1981년 4차에 걸친 교육과정중 가정, 기술의 교육 목표를 살펴본 결과 어디에서도 일반목표에 소비자교육에 관련된 목표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1981년의 교육과정 改正案에 있어서 남학생이 이수하는 生活技術교과에 1학년 목표 가운데

●생산과 유통과정을 이해하게 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는 목표아래 교육내용으로 생산과 소비라는 단원에 ① 생산과정, ② 구입과 소비, ③ 장부기록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1981년의 가정교과에도 일반목표에는 소비자 교육에 관련된 목표는 없었으며 1학년 학년목표에

●인간자원과 물적자원의 중요성 및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자원활용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로 가정생활에 참여하게 한다

는 목표아래 가정생활과 자원활용이라는 단원에 ① 인간자원, ② 물적자원, ③ 자원과 가정생활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生活과 環境문제를 여기서 다루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⁸⁾.

이와같이 과거 우리나라의 중등 가정과 교과에 있어서는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일반목표가 거의 없고 하위목표 및 이에 포함된 교과내용도 빈약한 실정이다.

금번 제 5차 교육과정 改正案에는 가정·기술의

一般目標에

●의·식·주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1학년 학년 목표에

●소비자의 역할과 가정자원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라는 목표아래 소비자 및 자원활용이란 단원이 설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① 소비자의 역할, ②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 ③ 가정자원의 활용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원 및 내용의 삽입은 사회의 변화 및 家政學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오히려 뒤늦은감이 있으며 敎科의 학년목표 및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더욱 그 내용이 넓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IV. 家政·技術敎科에 있어서 消費者敎育의 內容構成

米川등⁹⁾은 消費者敎育의 內容體系를 세 영역으로 분류하여 첫째, 소비자주의에 대한 價値認識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의 生活理念, 행정과 법률등과 관계된 것, 소비자 활동, 소비자 정보와 불만처리 등의 것으로 이것이 가장 기본적 소비자 교육의 과제라고 하였으며 독립교과로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심과제라고 하고 있다. 둘째는 소비자의 生活과 社會와 연관된 문제로서 物價와 流通問題, 소비자 자신이 상품이나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품질표시, 자원 문제, 생활의 危害問題등 넓은 의미의 生活環境에 관한 문제들이다. 셋째는 소비자가 가정생활안에서 구입한 물건을 사용하고 소비하는 문제로 物品의 사용법, 의·식·주 생활의 구체적 관리, 소비자의 건강, 생활의 설계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消費者敎育內容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중 家政·技術 교과에 포함시켜 교육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기술 교과에 공유될 수 있는 소비자 교육 내용의 핵심부분은 意思決定의 思考過程을 훈련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

과 교육과 소비자교육의 본질과 목표를 고려할 때 필수적인 내용에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가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참고로 보면 소비자 교육영역의 가장 보편적 교과내용이 意思決定過程에 대한 학습과 소비자 기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역할,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 및 자원의 활용등이 하나의 독립단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및 전기의 이용, 기계의 이용등의 단원에서도 소비자 교육내용의 기능적 부분 즉 예를 들면 사용방법 선택기준, 품질·가격표시 및 관리의 문제가 소비자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V. 結 論

2000년대의 한국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사회발전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복지사회 및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0년대를 살아갈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중등교육과정인 男女共修의 가정·기술교과에서는 인간으로서 생활해 나가는데 좀더 나은 상태(환경)를 추구하고 보다 나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價値를 확립하며, 보다 나은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手段, 方法, 技術을 몸에 익히도록 하여 生活의 質을 높일 수 있는 家政科教育 및 消費者教育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교과내용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과서의 교육을 위해서는 대학의

가정학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부터 소비자교육에 관련된 내용영역을 대폭 증설하여 미래의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가정과 교사의 자질을 키워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李春桂, 李貞德, 劉永祥, 朴明姬: 産業化 社會에 있어서 家政科 教育의 方向, 1983, 東大 教育問題研究 2호 pp.52-53.
2. Eun-young Ree, "A Comparative Study of Secondary Home Economics Programs in the U.S.A and in the R.O.K.," Texas Tech University, ph.D, Unpublished doctoral Disserations, 1978, p.102.
3. 米川五郎·堀田剛吉, "家庭科と 消費者教育", 消費者教育—現狀と課題—日本消費者教育學會編, 1983, pp.43~55.
4. 內藤道子外 4人, "家庭科教育における 消費者教育" 學藝圖書株式會社, 昭和 51, pp.17-40.
5. 上掲書, p.21.
6. 今井光映, "消費者 教育의 課題와 展望", 消費者教育 —現狀と課題— 日本消費者教育學會編, 1983, pp.1-27.
7. 內藤道子外 4人, 前掲書, p.31.
8. 文교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실업·가정과 —1946~1981—" 1986.
9. 米川五郎·堀田剛吉, 前掲書, pp.46-48.

中等學校에서의 家政科 敎育

— 家族生活을 中心으로 —

韓國放送通信大學 家政學科

金 惠 善

I. 家族分野 敎育의 必要性

가족은 사회의 基本單位로서 個人的 福祉와 社會의 維持·發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이든 一生을 ‘家族’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내게 되므로, 家族生活의 원만한 운영은 개인과 사회의 安寧에 關聯이 된다고 인식되어 왔다. 즉 ‘家族’이라는 集團은 個人을 保護·育成하고 社會의 統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現今의 家族을 보는 視覺의 一面은 현대사회의 諸樣狀과 傳統的 家族制度의 不諳和나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여러問題들(離婚·別居, 遺棄 등의 夫婦問題, 靑少年問題, 老人問題...)에 쏠려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시각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또 어떤 방향으로의 變化를 모색하느냐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겠으나, 종래 개인의 ‘보금자리’로서 가족에 품었던 기대가 무너지거나 사회적으로 가족이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면이 있으며, 이것을 豫防 혹은 治癒하는 여러가지 마련이 있어야 하겠다는 데에는 대체로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對策은 크게 두가지 方向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環境 변화에 대처하는 個人的 適應能力을 向上시키고 價值觀을 定立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社會의 次元에서 個人과 家族을 安定시키는 여러 政策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家族을 持援하는 사회적 차원의 복지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절실히 요청되어 왔

며 따라서 이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의 構造의 環境을 改善한다고 해서 곧 바람직한 家族像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개인이며 따라서 現實의 個別家族生活은 그 構成員들의 意識와 具體의 行動樣式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社會의 狀況의 變化를 유도하는 巨視的 次元의 努力과 함께 家族構成員들이 合理的으로 行動하고 週邊의 變化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다한 점에서 敎育의 役割은 참으로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家族生活에 대한 敎育은 가정에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가족은 그 形態上으로나 理念上으로 轉換期에 처해있어 父母들 자신이 급격한 사회변화속에서 家族生活에 대한 명백한 價值觀이나 規範을 缺如한 경우가 많고, 또한 전통적인 家族主義가 産業化過程에서 나타난 物質主義내지는 出世指向主義와 統合함으로써 합리적인 家族倫理로 發展하지 못하고 自己中心의 閉鎖的 利己主義로 흐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가정의 敎育機能을 바로잡으려는 노력과 함께 家族生活 및 家族倫理의 敎育에 있어서 學校敎育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고 보겠다.

특히 靑少年期는 發達段階上 自身の 正體感을 수립하는 시기이며 父母나 기타 주변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단계를 벗어나 自身과 그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장차 成人으로서 담당해야 할 여러 役割을 學習하는 중요한 때로써 이 時期의 成敗는 성인으로서의 個人的 삶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男女靑少年들

에게 人間의 共同生活에서 基本的으로 요청되는 行動倫理 및 價値觀, 家族內의 人間關係의 理解와 수행해야 할 役割等을 교육하는 것은 自我正體感 形成은 물론 현재 자신이 속한 家族과 社會에서의 適應을 돕고, 장래 家族生活의 設計와 함께 앞으로 직면하게 될 問題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能力을 길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

이러한 시각에서 本稿에서는 個人과 社會의 福祉에 기여하려는 本來의 趣旨을 달성하기 위해 ‘家族’에 대한 教育이 어떠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家族分野의 教育內容이 포함되어 있는 家政科의 教科課程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部分에 대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II. 「家政」의 教育內容

1. 中等教育에서의 ‘家族’분야 教科內容의 變化

近代의 意味의 家政科 教育은 1949年 종래의 家事, 手藝, 裁縫을 통합하여 女學生에게 ‘家政’을 이수케 함으로써 시작되었다(교육법 제155조). 이때 男學生에게는 家政에 대응하는 과목으로 ‘實業’이 부과되었다. 그후 1955년에 中等학교 教育과정의 制定되었으며(문교부령 제45호) 中等학교 實業·家政科에서 調理·保健·衛生·食品加工, 手技工作·製度機械다루기·문서사무·경영기장·계산·재배사육등의 內容을 교수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가정생활의 이해보다는 기능에 치중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家族’교 대한 내용이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1963年 中等학교 教育과정의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문교부령 제120호) 이때 衣生活, 手藝食生活, 住生活, 兒童保育 및 家族關係, 家庭保健, 家事實業, 家庭管理의 8개 지도영역을 확정하고 각 학년에서 같은 영역을 나선식으로 이수케 하였으며, 이때부터 家族關係나 家庭管理의 理論的 側面이 포함되게 되었다. 1969年 다시 中等학교 教育과정이 部分改定이 이루어졌는데(문교부령 제251호) 實業·家政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때에는 기술교육의 강화를 목표로 農·工·商·水産業·家政을 모두 필수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꾸

어 2학년부부터 다루고 男女共히 技術을 1학년부부터 3학년까지 계속 이수케 하였다. 1973年 中等학교 教育과정 제3차 전면개정(문교부령 제325호)이 단행되었는데 이때 개편된 實業·家政科 教育課程의 特徵은 ①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인식의 고양, ② 생활의 과학화 추구, ③ 가사실무 기능의 체계적 습득, ④ 직업적성의 탐구 및 가사실무 기능의 심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특히 기술·가정의 內容을 검토하여 필수와 선택의 실질적 구분을 시도한 점이다. 1981년 中等학교 教育과정 제4차 전면개정(문교부고시 제422호)에서는 급변하는 社會變化에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 中等학교 실업·가정과 의 이수내용은 필수과목인 家政을 1.2학년만 부과하고, 3학년에는 선택과목만 부과한 것이 종전과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가정의 주당시수가 2시간 감축되었고 선택과목(가사, 농·공·상·수산중 택일)은 3학년에만 부과하게 되어 종전보다 1~4시간 감축되었다.

以上的 變遷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家政科 教科內容의 特徵을 요약해 보면 첫째 가정과의 교과내용이 그때 그때의 時代像을 반영하여 초기에는 주로 生活을 위한 實技위주였으며, 특히 女性을 대상으로 主婦로서의 技能的 資質向上에 중점을 두었고, 그뒤 教育과정 개편에서도 기술적인 면에 치중하여 그 바탕을 이루는 理論的, 原理的인 면이 도외시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家庭의 運營에 대한 教育은 생활환경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에 맞추어서 개별적인 기능중심의 교수보다는 그 저변을 이루는 原理와 응용방법이 교수되어야 하며, 특히 새로운 產業社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등 미래지향적인 가정철학 내지 가족윤리를 확립하고 가족내의 인간관계, 수행해야 할 역할등을 인지하도록 教育하는 것이 가정과 教育의 시대적 사명이라 주장되어 왔다.

또한 教育대상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女學生에게만 국한되었던 점에서 벗어나 남학생에게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現代社會가 男女모두에게 社會의 한 構成員으로서 多樣한 社會活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女性자신의 社會參與能

力과 意慾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男女를 家庭內外로 分離하여 男性은 주로 職業生活 등 社會活動에 전념하고 家庭生活은 女性이 전담하도록 하는 役割分擔體系가 더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男性도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생활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정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과정상 남녀에게 차등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내용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은 남녀모두에게 生涯教育의 입장에서 이수됨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2. 家族分野에서 補充되어야 할 內容들

1982년 이후의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과거에 비해 많이 보강되었다. 즉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가족에 대해 언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가족의 뜻(정의), 個人과 社會에 대해서 家族이 갖는 意味, 家族의 構成, 家族員의 役割, 家族構成員間의 人間關係, 社會의 變化가 家族生活에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家族生活을 위한 여러방안들이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삽입되었다. 또 청소년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인식의 확대를 돕기 위해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 個人과 社會와의 關係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었다. 1986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펴낸 중학교 1학년용 교과서에 실린 가족생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학년용 교과서에는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이 없음).

I. 가족생활

1. 우리의 가정

- (1) 나와 가족—① 가족의 의미
 - ② 가족내에서 나의 할일
- (2) 가족간의 이해와 협동—
 - ① 가족원의 적용과 협조
 - ② 가족사이의 관계
- (3) 단란한 가정—① 현대가족의 특성
 - ② 가족생활의 계획화
 - ③ 바람직한 가족생활

2. 청소년의 특징

- (1) 신체적 특징—① 신체적 변화
 - ② 생리적 변화
- (2) 정서적 특징

3. 가정과 사회

- (1) 나와 사회—① 나와 친구
 - ② 세계속의 나
- (2) 가정생활과 지역사회—① 우리집과 이웃
 - ②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조

이상의 내용은 가정 I·II 전체 13단원중 독립된 한 단원으로 취급된 것으로서 종전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가족생활의 비중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人間과 環境의 相互作用의 측면에서 다양한 家族生活을 理解시키고, 더불어 人間の 全生涯를 관통하는 가족생활의 發達의 側面에 대한 認識을 갖게 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① 다른 사회집단과 구별되는 가족의 집단적·제도적 특성 및 기능.
- ② 歷史的·文化的 變移性에 따른 多樣한 家族形態.
- ③ 韓國家族의 特性(過去와 現在)
- ④ 家族生活週期(家族發達段階)의 特徵과 각 단계에서 가족원들에게 요구되는 發達課業.
- ⑤ 家族內에서의 원만한 意思疎通을 돕는 방안들 및 合理的 意思決定의 原則.
- ⑥ 家族이 利用할 수 있는 社會福祉施設 및 機關에 대한 案內.

III. 結 語

최근 文敎部는 제 5차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1987. 3. 30) 이를 89학년도 1학년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基礎科學教育의 強化를 위해 중 3학년에서 주 5~7시간 인 실업·가정교과시간을 1시간씩 줄이고 수학·과학시간을 늘이며, 중학교 1~2학년 선택과목으로 남녀학생이 함께 배우는 「기술·가정」 과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중학교는 현행 남학생용 「생활기술」, 여학생용 「가정」 및 신설된 「기술·가정」중 한가지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해서 가르치게 된다. 또한 문교부는 「실업·가정」내용을 男女가 共通으로 必要로 하는 추세에 맞추어 다음 교육과정개정 때에는 「기술·가정」을 모든 학교에서 義務的으로 가르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文敎部의 政策은 그동안 家政科目이 男女모두에게 이수될 필요성이 있음이 었러차려 주장되어 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여학생에게 부족했던 「기술」교육과 남학생에게 부족했던 「가정」교육을 상호보완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이제까지 독립된 영역으로 자기 독특한 교육목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온 두개의 科目을 단순히 통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이다. 남녀학생 모두에게 「기술」과 「가정」 두 교과내용이 공통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두 과목이 남녀모두에게 이수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하나의 敎科目으로 묶여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어와 수학이 남녀모두에게 필요한 과목으로서 남녀 모두에게 이수되어야 한다고 해서 두 과목을 통합하여 「영어·수학」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남학생에게 「기술」 2년, 여학생에게 「가정」 2년으로 합해서 4년동안 가르쳐왔던 내용을 2년으로 압축시킬 경우 교과내용과 시간배정이 맞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물론 적절한 조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두 科目에서 몇몇 내용을 선별하는 것에 그친다면 「기술」교육도 「가정」교육도 모두 절름발이가 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실업·가정」

교과시간의 재배정이 요구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3학년에서 「실업·가정」시간을 줄이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기술과 가정을 남녀모두에게 이수시켜야 할 원래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기술·가정」의 敎科內容을 신중히 선별하여 각 單元이 유기적으로 聯關性을 갖도록 해야 하며, 또한 남녀 모두에게 家庭生活의 바람직한 方向을 제시하는 전제로서 이제까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쳐 최근에야 삽입되게 된 家族生活에 대한 내용이 두 과목의 통합과정에서 축소되거나 생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대한가정학회편, 가정교육학·가정학 연구의 최신정보 Ⅱ, 1984.
2. 이인희, 이옥임, 가정교과수법, 수학사 1986.
3. 조혜정, 「가족윤리」, 현대사회와 가족, 제 7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심포지엄보고서, 1985.
4. 차경수, 「가정상 정립을 위한 교육의 과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보고서, 1986.
5. 최이순, 이기열등, 한국가정학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6.
6. 한국교육개발원, 제 5차 중학교 교육과정 자론 개정시안의 답신보고서. 연구보고 RR 86-23, 1986.
7. 한국교육개발원, 일본중학교 기술·가정과 지도서. 해외정보자료 IEI 86-1, 1986

87년도 춘계 학술대회 토의 종합보고

부회장 : 문 속 재 교수

전 체 토 의

가정과교육은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능력의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개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가정과교육은 미래 사회에서 생활을 합리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야 한다.

한편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남녀 공수의 가정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한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토의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교과내용의 문제로서, 교과내용은 우리나라의 현대의 상황에 맞고, 적용가능한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가정과 내용은 대학의 가정대학의 교육내용을 축소시킨 것은 부적당하다. 즉, 중학교 가정과교육은 건전한 생활습관과 발전적인 가치관 형성에 주안점을 두고, 오늘날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교과내용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에 따른 환경 변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간의 차이, 도시, 농촌간의 격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과내용의 연계성의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계성 부족의 원인은 정책변화에 따른 단기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급간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답변되었다. 즉 현재까지는 국가의 정책변화에 따라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시급히 개편되어온 경향이 있었고, 또한 초·중·고의 학교 급간의 참여자의 관점에 따라 방향 제시에 차이가 생기므로 연계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계성 문제를 타 교과목과 비교해 볼때, 타교과목의 경우 교육과정협회가 있어 방향 제시를 하므로 비교적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가정과에서는 전공과 일선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방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안이 요청된다.

셋째, 가정과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문제를 볼때, 가정과 교육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가정대학에서 연구자나 가정교육 전공자를 육성하여 교과내용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에 대한 개발과 비판을 피하여야 할 것으로 토의되었다.

분야별 토의

각 분야별 토의에서는 발제강연자의 강연내용을 바탕으로 일선에서 가정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비롯한 토의자들이 교과과정의 문제점 및 제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발제강연자들의 강연내용과 토의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분야

식생활 교육은 올바른 식생활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기본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대 생활구조에 적합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교육방법으로 영양과 식품의 원리 및 식생활 기술을 익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식생활은 주변환경에 의해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식생활교육은 생활환경 및 사회구조, 가치관, 의식구조등의 변화에 적응하며, 그 환경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때, 중학교 가정과목의 남·여 공수 문제의 제안은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타교과의 수준에 준하는 심도로 보다 폭넓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내용을 3년에 마칠 수 있도록 하되, 학년별로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 제안되었다.

한편, 내용은 좀더 심화시키고, 현대생활에 비중을 두어 영양원리 및 응용, 식품선택, 조리원리, 식품보관 및 위생, 식생활 관리로 분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원리를 깊이있게 다루고 이에 입각하여 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힘으로써, 구체적인 내용과 합리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여 개개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교과내용에 대한 제안으로서, 중·고의 교과내용 수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즉 중학교의 경우 교과내용이 너무 유치한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상식에 지나지않는 교과과정이 지양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서 분산되어 있는 단원을 종합하여 심화·충실을 기하고, 예를들면 재료의 계량, 음식물 데우기, 밥하기, 국 끓이기등 생활과 직접 관련된 기본적인 실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한편, 교과내용중 식생활의 주체에 대한 단원이 빠져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식사예절, self-service 등 생활예절에 대한 단원을 삽입함으로써 개개인이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는 주체자로서의 인식과 그 방법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2. 의생활 분야

사회의 변화와 가정내 부부의 역할 변화등의 현실을 감안할때 중등교육에서도 남·여학생 모두에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 즉, 가정생활의 준비가 필요하다.

의생활 분야는 현대과학의 발전과 사회의 산업화에 따라 급속히 변화하는 분야중의 하나이며,

의복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기 표현의 한 수단이며, 성별, 연령, 사회계층과 관계없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므로 남·여학생 모두에게 교육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남·여학생을 위한 의생활 교육내용을 5차 교육과정 시간을 중심으로 볼때 의복위생을 첨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기술로 통합시킨 교과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부족하며, 따라서 질적으로도 충분한 내용을 다룰 수 없으므로 가정을 독립된 교과로 개편하여 남·여학생에게 공통으로 이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와같은 강연내용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과 기술적인 운영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제안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배분과 과정, 교사의 연수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국민학교에서는 기초바느질, 중학교에서는 패턴을 이용한 옷 만들기, 수선, 다림질, 기성복 선택, 세탁기 사용을 위한 옷감의 종류, 옷 입는 방법등이 남·여학생 모두에게 이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 교과과정은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학교의 남자교사등 교사를 연수하여, 교사가 올바르게 학생의 생활교육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과정에 의복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 역사, 전통성등을 첨가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3. 주생활 분야

주거학 분야의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인간의 복지과 지역사회, 가정, 이웃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총체적, 생태적 관점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가 요구된다.

즉,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에서의 주거학은 사회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사회규범을 선도하며, 주거가치관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간중심주의를 중시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면, 첫째, 다양한 사회변화와 주거문제를 반영해야 하며, 둘째, 다양한 생활양식, 주거유형, 사회계층의 요구를 반영하며, 사회

교육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세째, 초·중·고의 교육과정의 연계성과 난이도 문제가 조절되어야 한다. 네째, 현재의 주거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문화유산과 미래지향적 주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주생활 분야의 토의에서는 교과과정에서 현실적인 기준에 쫓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무주택 가구가 많고 따라서 기본적인 주거시설조차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의 내용은 상류층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즉 사회계층 및 경제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못하므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 경우의 주생활보다는 자체층에 따른 환경 적응이 실제로 더 유용한 학습이 될 것이다.

한편, 주거와 관련된 실생활에 관한 내용을 보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들면 주택 매매 및 이전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한 예로서 지적되었다.

4. 가정경제(소비자교육) 분야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양성하기 위한 중등교육과정인 남녀·공수의 가정·기술 교과에서는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며, 가치를 확립하고 향상시키는 가정과교육 및 소비자교육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교과내용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가정과 교과에는 소비자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포함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볼 때, 앞으로의 소비자교육의 내용은 의사결정의 사고과정을 훈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학습과 소비자 기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소비자의 역할,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 및 자원의 활용, 사용방법, 품질 및 가격 표시, 관리문제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정과 교과내용중 소비자교육 분야가 미비했었다는 강연 내용에 대해 소비자교육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교육이 89년부터 삽입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교육 분야는 지금까지 이수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인만큼 그 내용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5. 가족관계 분야

현대사회의 급변과 가정의 교육기능의 축소로 인해 가족생활 및 가족윤리의 교육에 있어 학교교육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중학교에서의 가족생활 분야의 교육은 공동생활에서 요청되는 행동윤리 및 가치관, 가족내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와 성역할 수행등의 내용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의 적응, 가정철학내지 가족윤리의 확립, 장애의 가족생활 설계와 문제점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남·녀 모두에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하며 남성도 가정생활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므로, 가족생활 내용은 남·여학생 모두에게 생애교육의 입장에서 이수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 교과내용에 가족의 기능,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특성, 다양한 가족형태, 가족원의 발달과업, 가족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가족원을 위한 사회 및 복지시설의 안내등이 보충되어야 한다.

위와같은 강연자의 제안 내용에 대해 현재의 교과내용이 단원의 설정 자체는 좋으나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추상적,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제안이 덧붙여졌다.

한편 남녀가 유별했던 우리나라의 전통을 고려해 볼 때 남녀 평등의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생활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상으로 토의내용은 종합해 볼 때, 가정과교육의 목표가 건전한 인간을 양성해 내는데 있는만큼 모든 분야에서 가정과교육의 남·녀 공수가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자질향상, 새로운 정보의 이용으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가정과목이 타 교과목의 수준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과학화된 가정과 교과내용의 재정리

가 시급하며, 궁극적으로 가정과 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즉, 가정과목을 생활과학으로서 독립된 교과목으로서의 가정과 철학을 정립시켜 가정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애교육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